

세계 사진영상인의 축제 'Photokina 2010' 이모저모

미러리스 카메라 등 디지털영상 관련 '이슈'와 '볼거리' 풍성

격년으로 독일에서 열리는 'Photokina 2010'가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5개국에서 1천251개 사가 참가했고 전시기간동안 1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는데 이는 이전 전시회보다 7% 증가한 수치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위상을 과시한 세계적인 전시회였다. 협회에서는 15개사와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하여 우리제품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고 좋은 상당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본고에서는 카메라 위주의 제품출시 경향과 한국업체들의 성과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취재/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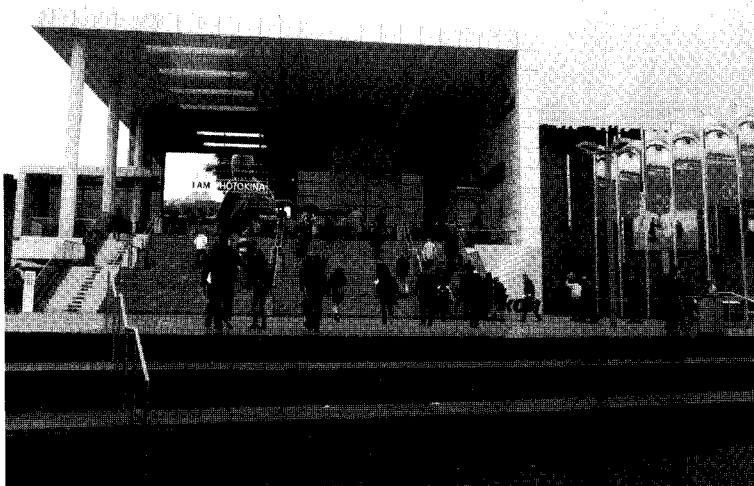
100년 전통의 사진영상 및 광학기기 전문 무역전시회로 잘 알려진 독일 포토키나 전시회가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쾰른 국제 박람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격년으로 열리는 포토키나는 일찍부터 광학분야 종사자라면 관람을 필수로 여길 만큼 인지도에서 최고

로 손꼽힌다. 전시관람료도 상당히 비싼 관계로 일반인 보다는 관련업계 전문 종사자들이 주로 참관하는 전시회로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전 세계 바이어들이 집결하는 사진영상 전문 무역전시회이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툰어라운드'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 2010년에 열렸지만 올해의 포토키나는 사진시장의 축소 경향을 반영이나 하듯 전시규모가 다소 축소되어 지난해 47개국에서 올해에는 전 세계 45개국 1천251개 업체가 참가하여 최신 기술 및 제품을 선보였다. 반면 참관객 수는 종전보다 7%가 늘어나 18만



▶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포토키나 전시회가 열린 독일 쾰른 국제 박람회장 외부 전경



▶ 참관객들로 북적이는 전시장 입구 전경



▶ 올해 전시 참관객 수는 종전보다 7%가 늘어나 18만 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필름 국제 박람회장 내부는 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채롭다.

여명의 참관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전시 주최 측은 포토키나가 높은 수준의 이벤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무역관련 방문객과 일반 소비자들의 참여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특히 젊은 사진애호가들의 참여가 급증한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한국에서는 총 26개사가 참가했는데 이중 11개사는 개별부스로 참가했고 한국광학기기협회가 15개 업체(참가업체 : 매트인, 현대포토닉스, 애니디카, 이탈라인 터내셔널, 엘씨코퍼레이션, 산주, 희망개발, 건영크리

너, SMDV, 원배경, C&J, KPS디자인, 기선, 플러스젯, 동양코리아)와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하여 우리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고 풍성한 상담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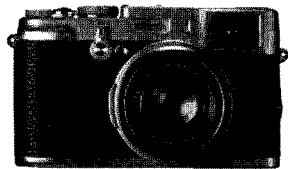
최근 사진영상분야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서 한국의 사진기재업체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관 업체들의 제품 출품동향을 살펴봐도 과거에는 부피가 큰 아날로그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무선동조기, 앨범코팅장비, 앨범출력장비, 미니앨범 프로그램, 사진촬영기자재 등 디지털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이 출시되면서 저가의 중국제품 보다 품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삼성도 디지털카메라를 전략품목으로 정하고 매출증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포토키나 전시장에서 도 큰 호응을 얻으며 밝은 전망을 예견케 했다.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출시경쟁 과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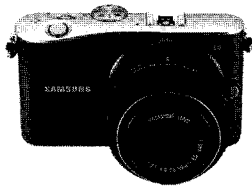
최근 카메라시장은 휴대성을 무기로 한 콤팩트 카메라와 화질과 성능을 앞세운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의 장점을 합친 '미러리스 카메라'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DSLR 카메라 내부의 반사경을 제거해 크기를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인 제품을 말한다. 대신 필름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커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번 포토키나에서 캐논과 니콘이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대신 후지필름과 시그마가 포토키나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며 시선을 끌었다.

후지필름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미러리스 카메라 'X100'을 처음 일반에 선보였다. X100은 APS-C 규격의 1230만 화소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초점거리 23mm의 후지논 렌즈를 장착했다. 이 제품은 카메라 내부에 반사경을 없애 미러리스 카메라와 같은 구조를 채택했지만 기존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렌즈를



▶ 후지필름의 미러리스 카메라 'X100'



▶ 삼성전자의 미러리스 카메라 'N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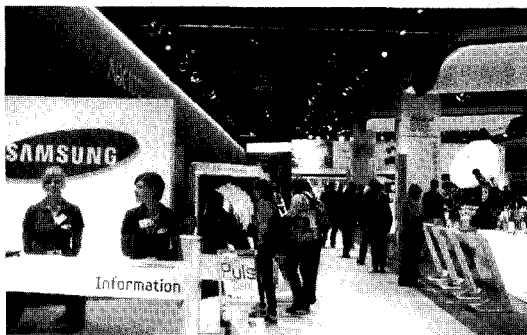
▶ 미러리스 카메라 돌풍을 만들어낸 올림푸스의 '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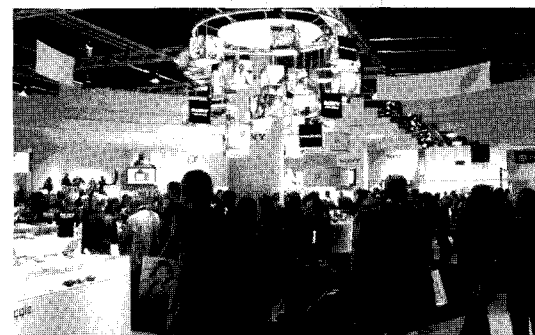
▶ 니콘의 전시 부스



▶ 올림푸스의 전시 부스



▶ 삼성은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NX100'을 전면에 배치하고 집중 홍보 했다.



▶ 소니의 전시 부스



▶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인 캐논의 전시 부스



▶ 신제품 출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은 후지필름

교환할 수는 없다. 대신 클래식한 디자인의 인기를 반영하듯 올림푸스의 '펜' 처럼 고전적인 디자인을 채택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후지필름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 세계에 출시할 예정이다.

시그마는 이미지 센서인 '포베온'을 대폭 개선한 렌즈 교환식(DSLR) 카메라 'SD1'을 공개했다. 포베온 센서는 단면인 CMOS·CCD 등과 달리 3중의 감광층을 채택해 색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35mm 필름 환산 시 초점거리가 1.7배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시그마는 SD1을 발표하며 초점거리를 대폭 개선한 포베온 센서를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미러리스 카메라 'NX100'를 선보였다. NX100은 콤팩트 카메라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세계 최초로 기능 조절 렌즈인 '아이핑션 렌즈'를 적용했다. 사용자들이 카메라의 감도(ISO), 노출(EV), 화이트밸런스(WB), 셔터스피드, 조리개값 등의 설정을 포커스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NX100 시리즈를 통해 올해 국내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점유율 50%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전체 카메라 시장에서 1위 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다.

소니는 세계 최초로 반투명 거울 기술을 도입한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33·55'를 선보였다. 기존 DSLR 카메라의 미러 박스에 반투명 거울이 장착된 신개념 카메라로, 크기와 무게를 줄여 DSLR 카메라의 단점을 개선했다. 자동초점(AF) 성능과 연사 속도 또한 크게 높였다.

파나소닉에서도 '루믹스 G2'에 이어 동영상 기능을 대폭 강화한 '루믹스 GH2'를 처음 공개했다. 파나소닉의 대표적인 미러리스 카메라인 '루믹스 G2'는 DSLR를 포함해 렌즈교환식 카메라 최초로 터치패널과 터치셔터를 장착했다. 무게가 371g에 불과한 이 카메라는 터치셔터 기능이 탑재돼 터치스크린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다. LCD 화면을 통해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다.

한편, 미러리스 카메라 돌풍을 만들어낸 올림푸스 역시 'PEN'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웠다. 다양한 카메라 라인을 선보인 가운데 PEN의 최신 모델인 'PEN-EPL1'은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손떨림방지 기능을

본체에 내장했다. 또 새로운 방식의 사용자환경(UI)을 적용해 DSLR 카메라 조작을 어려워하는 여성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캐논과 니콘도 각각 최근 출시한 'EOS 60D'와 'D7000'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광학기기협회 국내업체 15개사와 한국공동관 참가,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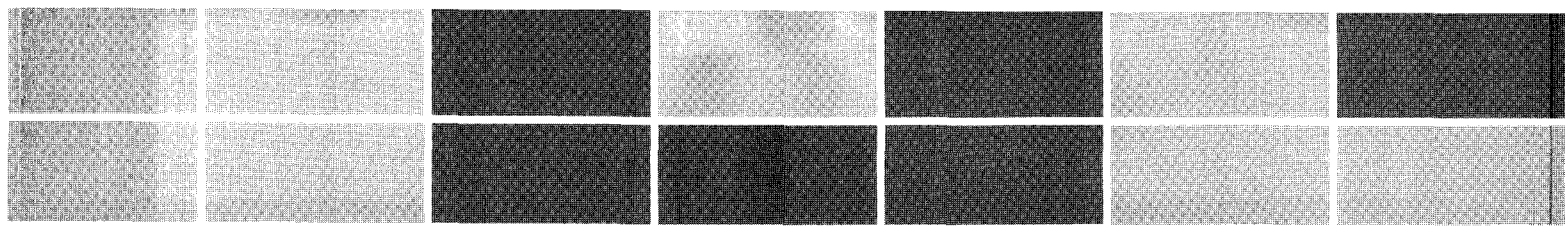
우수한 사진기자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는 해마다 PMA, Photokina 등 사진영상 관련 해외전시회에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다.

포토키나의 경우 2000년 최초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한 이래 올해가 6번째 참가이다. 올해에는 15개사가 참가하여 상담건수만 199회로 상담액 1700여 달러, 계약액 600여 달러의 성과를 거두는 등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돌아왔다.

참가업체는 매틴, 현대포토닉스, 애니디카, 이탈라인 터내셔널, 엘씨코퍼레이션, 산주, 희망개발, 진영크리너, SMDV, 원배경, C&J, KPS디자인, 기선, 플러스젯, 동양코리아 등 이상 15개사이다.

먼저, 종합 사진기자재 업체인 매틴(대표.박덕신)은 카메라 가방, 스트랩, 반사판, 청소용품, 필터 등 다양한 사진기자재 제품들을 출품했다. 특히 한층 품질이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가방 및 스트랩 등의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매틴의 정성준 과장은 "금번 전시회를 통해 수십여 개의 기존 거래처들과 새로운 바이어들, 일반 사진애호가들에게 매틴의 브랜드 이미지와 혁신적인 제품들을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 등 기존 거래선들과는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 오더를 수주했으며 새롭게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의 동유럽 업체들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업체들과도 거래를 시작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레이저용 쌍안경 제조업체인 산주(대표.김기철)는 이번 전시회에 방수 쌍안경 신제품을 출품했다.

산주에서 선보인 방수 쌍안경은 휴대 및 보관이 용이한 작은 사이즈이면서 높은 광학적 성능을 가진 것이 큰 장점이다. 배율에 따라 6배, 8배, 10배 등으로 나뉘며, 알루미늄 바디를 채용, 충격에 대비했다. 또한 Nitrogen Gas를 넣어 완벽한 방수 성능을 자랑한다. 산주의 최영한 회장은 “금번 산주에서 선보인 방수 쌍안경의 품질에 대한 반응이 좋아 연일 많은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며 “특히 경쟁 업체인 중국 쌍안경 업체들의 가격 상승요인이 오히려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많은 상담과 주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엘씨코퍼레이션(대표.이정균)은 카메라 및 고가의 정밀기기 등을 이송할 때 손상없이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는 특수 가방과 스트랩 제품을 출품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부스 참관객들로부터 가장 인기를 끈 제품은 카메라 가방이다. 무거운 DSLR 카메라를 목이나 어깨에 메고 다녀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에어셀 존과 탄력성 있는 재질이 조합을 이룬 Air Comfort Camera를 비롯하여 Binocular, Tripod Sreap 등의 제품들이 인기를 모았다.

이정균 사장은 “금번 전시회의 괄목할만한 성과라면 스트랩과 케이스 종류의 자사 브랜드인 ‘AIRCELL’과 ‘ZIPPACK’을 러시아, 터키, 홍콩, 싱가포르, 독일 등 여러 국가로부터 실주문을 받아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일류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퍼즐머신기로 유명한 희망개발(대표.이준구)은 지난 4월 코엑스에서 열린 ‘P&I 2010’에서 첫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불러 모은 포토북 머신(Handy Tomson 2000)을 주력제품으로 홍보했다. 이 제품은 기존의 프레스 커터 2000모델의 업그레이드 타입으로서 미니 및 포켓 사이즈의 포토 앨범뿐만 아니라 3×4에서 최대 6×6 사이즈까지 포토북 제작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밖에 희망개발에서는 즉석에서 사진 퍼즐제작이나 기업의 사원증, 포켓 사이즈의 포토앨범 제작이 가능하다는 퍼즐머신, 프레스 커터 등을 선보였다.

희망개발 이준구 사장은 “전시기간동안 유럽을 비롯하여 러시아, 아시아, 중동지역 등 많은 바이어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퍼즐머신을 비롯한 포토북 머신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전시기간에도 현지 계약은 물론, 귀국 후에도 바이어들로부터 연일 제품에 관한 문의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플래시 전문업체인 현대포토닉스(대표.황운호)는 이번 전시회에서 LED라이트와 일체형 파워팩 시스템인 퀴드플렉스 제품을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획기적으로 단축된 1/10,000의 섬광지속시간을 제공하는 LED라이트인 LS STROBE는 전력소모가 적으며 AC/DC 전원을 활용할 수 있어 실내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실외환경에서도 한번 충전으로 최대 20,000에 이르는 발광횟수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퀴드플렉스라는 일체형 파워팩 시스템은 조명 4개를 개별 슬롯에 장착하여 최대 4800w/s의 강력한 광원을 제공하며 무선 리모컨 및 PC 제어가 가능한 신개념 파워팩 시스템이다. 이밖에 일반타입인 스탠다드 패브릭을 비롯, 보다 업그레이드된 광질을 제공하는 라임 패브릭, 영상촬영을 위해 고온의 램프 발열에 견딜 수 있는 비디오 패브릭을 새롭게 선보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배경업체인 원배경(대표.박웅철)은 포토키나 전시 참가가 올해로 6번째로서 국내외 사진시장에서 이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포토키나에서도 사진 배경 분야의 참가업체중 절반이상이 저가제품을 선보인 중국업체들이었으나 최고의 품질로써 원배경이 단연 돋보였다.

이미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거래처를 확보한 원배경은 이번 전시를 통해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업체와도 활발한 상담을 통해 거래선 확보에 주력했다.

원배경의 박웅철 사장은 “품질력으로 인정받으며 전

시제품들 대부분이 현지에서 판매가 완료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며 "전시 이후에도 메일을 통한 주문과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협회와 한국공동관을 통해 포토키나 전시회에 처음 참가한 볼 헤드 전문업체인 KPS 디자인(대표. 강필식)은 T5 Micro Ball Head와 Slim Plate 전용 볼 헤드를 주력으로 홍보하며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기존 볼 헤드와 차별화된 기술로 유튜브에 '포토키나 2010' 전체 참가업체 제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제품에 선정되면서 참관객들의 발걸음이 폭주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강필식 사장은 "세계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T5의 마이크로틸트 볼 헤드는 바이어들이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찬사가 쏟아졌다"며 "포토키나에서 계약을 체결한 싱가포르에는 바로 수출이 진행되었고,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영국 등 유럽과 홍콩, 미국 등의 바이어와도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극세사 클리너 전문업체인 건영크리너(대표.이상훈)는 카메라, 렌즈, 정밀기기 등 다양한 용도의 극세사 클리너(CleanPix) 제품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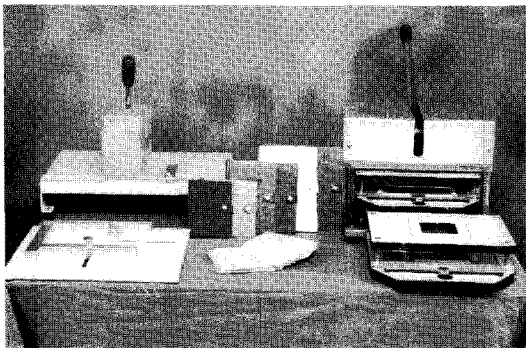
정석준 대리는 "포토키나 현장에서만 200여 업체와 상담을 했고, 전시 이후에도 많은 상담과 주문이 이어지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애니디카(대표.위흥렬)는 DSLR 카메라의 렌즈를 콤팩트 카메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렌즈 브랏켓(SAD-B7)과 각종 망원(SAD-837&N728)/광각(SAD-W737&728)/접사(SAD-L320)렌즈 등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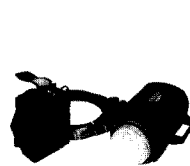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에는 렌즈를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니디카에서 개발한 렌즈 브랏켓을 사용한 렌즈를 장착하면 카메라의 기능이 수십 배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용주 이사는 "콤팩트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 브랏켓과 각종 렌즈 등은 애니디카만의 기술력이 집약된 특허받은 제품"이라며 "많은 바이어들과 언론매체에서도 처음 접하는 제품이라며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시기간동안 유럽, 아시아, 중동, 러시아, 인도,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품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애니디카는 현재 많은 업체들과 상담중이며 큰 거래선과의 계약을 체결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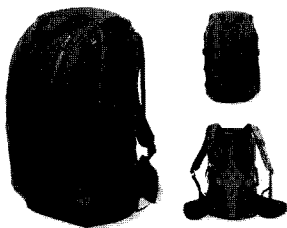
▶ 희망개발은의 포토북 머신(Handy Tomson 2000)



▶ 현대포토닉스의 LED라이트와 쿼드플렉스 제품



▶ 산주의 방수쌍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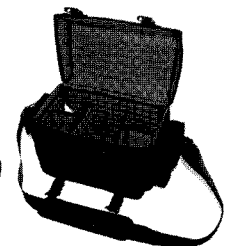
▶ 매티에서 선보인 가디언 카메라 가방



▶ KPS 디자인의 T5 Micro Ball Head



▶ 엘씨코퍼레이션에서 선보인 카메라 가방





▶ 한국광학기기협회 홍보 부스



▶ 희망개발은 기존의 프레스 커터 2000모델의 업그레이드 타입의 포토퉁 머신(Handy Tomson 2000)을 주력제품으로 홍보했다.



▶ 매틴은 카메라 가방, 스트랩, 반사판, 청소용품, 필터 등 다양한 사진기자재 제품들을 출품했다.



▶ 현대포토닉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LED라이트와 일체형 파워팩 시스템인 쿼드플렉스 제품을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 산주는 이번 전시회에 방수 쌍안경 신제품을 출품하며 많은 인기를 모았다.



▶ SMDV의 전시 부스



▶ 엘씨코퍼레이션는 카메라 및 고가의 정밀기기 등을 이송할 때 손상없이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는 가방과 스트랩 제품을 출품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 포토키나 전시 참가가 올해로 6번째인 원배경은 경쟁상대인 중국업체들을 제치고 많은 인기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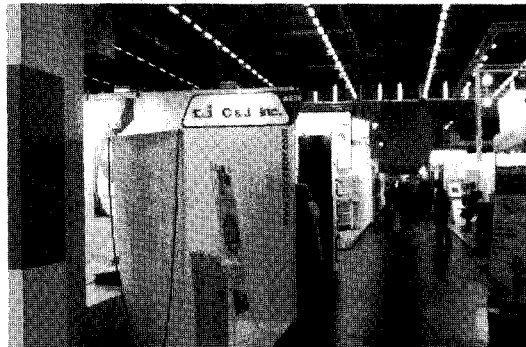
포토키나 2010 리뷰



▶ KPS 디자인은 T5 Micro Ball Head와 Slim Plate 전용 볼헤드를 주력으로 홍보하며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건영크리너는 카메라, 렌즈, 정밀기기 등 다양한 용도의 극세사 클리너(CleanPix) 제품을 선보였다.



▶ 씨엔제이 부스 전경



▶ 애니디카는 DSLR 카메라의 렌즈를 콤팩트 카메라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렌즈 브릿지(SAD-B7)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 기선 부스 전경



▶ 이랄라인터내셔널 부스 전경



▶ 플러스넷 부스 전경



▶ 동양코리아 부스 전경